

지방공무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

박현희**** · 류소연** · 김보은* · 천인애* · 김명권****

The Associated Domains of Job Stress for the Depression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Hyun-Hee Park · So-Yeon Ryu* · Bo-Eun Kim** · In-Ae Chun*** · Myung-Guon Kim****

요약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수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방 공무원 734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변수는 일반적 특징, 직업 관련 특징, 직무스트레스(KOSS), 우울(CES-D)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t-검정, 분산분석과 피어슨의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44.38 ± 7.96 점으로 전문가 집단과 유사했으며, 우울은 14.46 ± 10.19 점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 요구, 직무 불안정, 보상 부적절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and to find the associated domains of job stress with depression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The study subjects consist of 734 local public officials in Seogu, Gwang Ju. A structure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job stress(KOSS), and depression(CES-D). The use statistical methods wer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score of job stress was 44.38 ± 7.96 and the score of depression was 14.46 ± 10.19 . The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shown that the three domains of job stress including job demand, job insecurity and lack of reward were associated with the depression.

키워드

Job Sress, Depression, Local Pblc Officials
직무스트레스, 우울, 지방공무원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사항을 실행하

기 위해 역량강화가 중요하게 요구되어 지며, 지방정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시 되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윤 규범과 무조건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gusgm166@korea.kr)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cansry@chosun.ac.kr)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kmg0924@korea.kr)

접수일자 : 2013. 07. 01

심사(수정)일자 : 2013. 08. 23

게재확정일자 : 2013. 09. 23

받고 있다[1].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 총 정원 중 중앙정부 일반 행정담당공무원은 9.7%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35.8%로 대민과의 접점에서 행정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2].

최근 행정서비스 정책에서도 주민만족과 고객제일주의가 다루어지고 있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으며[3], [4], 이런 높은 스트레스는 조직적으로는 이직, 결근율의 증가 등으로 결국 조직의 비용손실을 가져오게 되며 개인에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 정신적, 신체적인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5], [6].

Park[7]은 중앙공무원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직급, 직무만족도 및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는 행동유형의 A형 행동유형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으며, 직무에 대한 불안정이크고 직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기분, 생각,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가벼운 경우는 조용함, 자제와 억제, 불행감, 비판, 피로감, 무능감, 절망감 등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는 경우 주의력, 집중력 및 기억력의 장애, 관계망상, 죄책망상이 나타나며,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가장 위험한 인자이다[8], [9].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간호사와 소방직, 경찰직, 교사 등과 같은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10], [11], [12], [13], [14],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직종에서 이미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수준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근무하는 서구청의 일반직과 계약직 직원인 943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2월 18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서장의 협조를 얻은 후 정신 보건 전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각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비밀유지 및 비위해성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인인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943부를 배부하여 76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참여율 81%),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34명 자료를 제외한 734명을 본 연구의 최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자료수집 방법 및 조사내용

2.2.1 일반적인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학력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직무관련 특성 중 근무기간은 5년 미만, 5-14년, 15-24년, 25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직렬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으로 분류하였으며, 주업무내용은 일반, 사회복지, 기술, 기타로 분류하였다.

2.2.2 우울 측정

우울 측정은 Radioff (1977)에 의해 개발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바탕으로 조맹제 외[15]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CES-D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지난 1주일동안에 경험한 빈도를 4점 척도로 '항상 그랬다', '비교적 그랬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각각에 대해 3-2-1-0점을 부여하였고 긍정적 감정을 묻는 5번, 10번, 15번은 역환산 처리하여 문항점수의 합을 우울점수로 계산하였다. 측정가능한 점수는 0-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2.3 직무스트레스 측정

직무스트레스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하고,

장세진 외[16]에 의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 KOSS)를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물리환경 3문항, 직무요구 8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5문항, 관계갈등 4문항, 직무 불안정 6문항, 조직체계 7문항, 보상부적절 6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총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각 4점, 3점, 2점, 1점으로 표기하였으며 역문항은 역환산하여 평가하였다. 8개 영역의 문항수가 동일하지 않고 직무스트레스요인을 하나의 점수로 표현할 때 일부영역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영역별 점수는 도구지침에 따라 (실제점수-문항수) \times 100/(예상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로 구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각 영역 점수의 총합)/8로 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우울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우울 점수와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t-검정, 분산분석과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영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직무 스트레스 외에 학력과 주요 업무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alpha=0.05$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

대상자는 남자가 53.5%, 여자가 46.5%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38.7%로 가장 많으며, 40대 33.0%, 50대 19.4%, 30세 이하 8.9%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졸 64.8%, 전문대졸 17.4%, 고졸 12.8% 대학원 5.0%이었다. 근무기간은 5년 이상 14년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15년이상 24년 미만이 27.8%, 5년 미만이 24.6%, 25년 이상이 9.9%이었다. 직렬은 일반직

71.7%, 계약직 22.0%, 기능직 6.3%이었으며, 주업무내용은 일반 행정이 61.8%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11.6%, 기술 16.0%, 기타 10.6%의 순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N(%)
Sex	Male	387(53.5)
	Female	337(46.5)
Age(year)	<30	64(8.9)
	30-39	279(38.7)
	40-49	238(33.0)
	50-59	140(19.4)
Education	High school	92(12.8)
	College	125(17.4)
	University	465(64.8)
	Graduate school	36(5.0)
Occupation career(year)	<5	177(24.6)
	5-14	271(37.7)
	15-24	200(27.8)
	\geq 25	71(9.9)
Employed status	General public officials	504(71.7)
	Public official technical post	44(6.3)
	Contracted service	155(22.0)
Job task	Regular government service	426(61.8)
	Social welfare	80(11.6)
	Technique	110(16.0)
	Other	73(10.6)

3.2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연구 대상자의 우울 총점은 14.46 ± 10.19 점이었고, 직무 스트레스 총점은 44.38 ± 7.96 점이었다. 직무스트레스 영역별 점수는 물리환경 38.51 ± 17.80 점, 직무요구 47.16 ± 13.22 점, 직무 자율성 결여 51.29 ± 11.11 점, 관계갈등 36.31 ± 13.93 점, 직무불안정 44.20 ± 10.94 점, 조직체계 48.58 ± 14.15 점, 보상부적절 48.06 ± 13.46 점, 직장문화 40.96 ± 5.22 점이었고 이 중 직무자율성 결여 영역의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다.(표 2)

표 2.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 of depression, occupational stress and it's domains

Variable	M±SD
Depression	14.46±10.19
Occupational stress	44.38± 7.96
Physical environment	38.51±17.80
Job demand	47.16±13.22
Insufficient job control	51.29±11.11
Job insecurity	36.31±13.93
Interpersonal conflict	44.20±10.94
Occupational system	48.58±14.15
Lack of reward	48.06±13.46
Occupation climate	40.96± 5.22

Occupation	Graduate-school	13.97±11.60	
career(year)	<5	13.94± 9.53	0.400
	5-14	15.28±10.75	
	15-24	14.39± 9.67	
	≥25	13.40±11.43	
Employed status	General public officials	14.49±10.11	0.229
	Public official technical post	12.29±11.21	
	Contracted service	15.29±10.35	
Job task	Regular government servise	13.70±10.02	0.003
	Socal welfare	15.92±11.00	
	Technique	17.29±10.59	
	Other	13.00±10.23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 따른 우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점수와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주업무 내용에 따라 우울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술직의 경우 우울점수가 17.29±10.59점, 사회복지직은 15.92±11.00점, 일반행정직은 13.70±10.02점, 기타13.0±10.23점이었다. 성, 연령, 학력, 근무기간, 직렬과 우울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단 학력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경계역 수준이었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 따른 우울
Table 3. Comparison of depression score according to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M±SD)	P-value
Sex	Male	14.80±10.62	0.344
	Female	14.08± 9.75	
Age(year)	<30	13.15± 9.05	0.697
	30-39	14.54±10.32	
	40-49	14.57± 9.97	
	50-59	14.98±10.96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14.28±10.18		
University	14.08±10.07		

3.4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점수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우울점수는 직무스트레스 총점(r=0.506)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과 우울점수와의 상관분석 결과, 물리환경(p<.001), 직무요구(p<0.001), 직무자율성결여(p<0.001), 관계갈등(p<0.001), 직무불안정(p<0.001), 조직체계(p<0.001), 보상부적절(p<0.001), 직장문화(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3.5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회귀 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에 우울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P<0.1이었던 학력과 주요업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보상부적절이 우울점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직무스트레스의 타 요인들은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즉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불안정이 클수록, 업무에 대해 기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수록 우울수준은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학력, 주요 업무 등의 독립변수에 의한 우울의 설명력은 30.7%였다.(표 5)

표 4.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점수와의 관련성
Table 4.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omain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V1	V2	V3	V4	V5	V6	V7	V8	V9
V2	0.328***								
V3	0.302***	0.321***							
V4	0.118**	0.180***	-0.092*						
V5	0.257***	0.248***	0.035	0.234***					
V6	0.282***	0.218***	0.071	0.095	0.247***				
V7	0.322***	0.258***	0.158***	0.282***	0.402***	0.182***			
V8	0.411***	0.267***	0.145***	0.262***	0.315***	0.154***	0.581***		
V9	0.286***	0.2385***	0.3771***	0.070	0.301***	0.233***	0.328***	0.294***	
V10	0.506***	0.640***	0.457***	0.408***	0.606***	0.447***	0.697***	0.656***	0.637***

Shown values are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 V1: depression, V2:physical environment, V3 : job demand, V4 : insufficient job control, V5 : interpersonal conflict, V6 : job insecurity, V7 : organizational system, V8 : lack of reward, V9 : occupational climate, V10 : occupational stress : *,p<.05, **,p<.01, ***,p<.001

표 5.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5. The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epression and domains of job stress

Variable	b	se	p-value
Constant	-13.41	2.47	<.0001
Physical environment	0.049	0.021	0.0244
Job demand	0.172	0.029	<.0001
Insufficient job control	-0.016	0.032	0.6213
Interperssonal conflict	0.055	0.027	0.0414
Job insecurity	0.015	0.031	<.0001
Organizational system	0.017	0.030	0.5639
Lack of reward	0.217	0.030	<.0001
Occupational climate	0.025	0.025	0.3167

b : regression coefficients, se: standard error adjusted for educational level and job task. r2=0.307

IV. 논의

최근 다양한 직업군에서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이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18], [19]. 그 중에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행정서비

스현장 제정과 개방형 임용제 등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공공조직의 급격한 변화는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동기를 저하시키고 직무만족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20]. 이렇게 증가하는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이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소방직, 경찰직, 교사 같은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요인의 하부요인과 우울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인 지방직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44.38점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특수한 근무 환경과 조건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48.8점, 지하철 근로자의 46.6점[21]과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46.48점, 서비스직 근로자의 47.06점 보다 낮은 점수이나 전문가의 44.48점과는 유사한 직무스트레스 총점을 나타냈다[22].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은 직무자율성 결여가 5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체계 48.5점, 보상부적절 48.0점, 직무요구 47.1점, 관계갈등 44.2점, 직장문화 40.9점, 물리적 환경38.5점, 직

무불안정 36.3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방 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물리적 환경이 가장 높은 58.4점이며, 직무자율성 결여 53.3점, 조직체계 52.0점, 직무요구 50.0점, 직무 불안정 47.8점, 보상부적절 45.7점, 조직문화 44.2점, 관계갈등 38.9점 순으로 보고되었다[23].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은 남·여 승무원 모두 물리적 환경이 각각 56.14점과 61.70점으로 가장 높은 영역임을 보고한 바 있다[24].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에 직무요구가 60.86점으로 가장 높으며, 조직체계 55.0점, 물리환경 52.4점, 보상부적절 49.3점, 직무자율성 결여 47.4점, 조직문화 41.0점, 직무불안정 37.3점, 관계갈등 33.9점 순으로 보고 하기도하였다[18]. 이와 같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공무원의 직무자율성 결여가 가장 높은 점수의 영역인 것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특수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공무원들이 계층적 감독체제에서 피동적 업무처리방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25].

우울점수는 평균 14.46점으로 Kim 등[13]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우울점수인 12.26점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우울점수 12.50점[26] 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Cho & Kim[15]이 제안한 21점을 절단점으로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21점 이상을 우울로 평가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27.7%가 우울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내 5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8,096명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이 15.9%[27],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3개 은행의 근로자 2346명의 우울이 20.6%[28]보다도 크게 앞서는 수치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우울은 일반근로자나 은행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나 중앙행정부와 광역자치체와 기초 지자체 근무자에 따른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전국규모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직무스트레스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 하부영역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서비스직 종사자 [29], [30], 병원 종사자 [18], 교사[17]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우울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무요구, 직무불안정, 보상부적절이 지방 공무원의 우울에 대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하부요인은 우울에 대하여 총 30.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직무요구도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완수하는 고객 지향의 행정과 공무원이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적 압박,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업무 다기능 수행과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늘어난 직무요구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25].

McDonough[31]는 직무 불안정은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와 직무 특성의 상실이 예상될 경우 느끼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정의하며 직업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을 때 위협과 불안을 느끼며 우울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무 불안정이 항우울제 복용의 예측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32]. 본 연구의 직무 불안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잦은 인사이동, 최근 공직사회의 개방형임용제의 강화, 무능한 공무원 퇴출이 몇몇 지역에서 실시되는 경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일반직과 기능직, 기간제 공무원간의 우울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특히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직무 불안정이 유의하게 높아 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 한 바 있다[33], [34]. 따라서 향후 정규직 공무원과 기간제 공무원간의 우울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가 광범위하게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Standfeld & Candy[35]는 직무 불안정이 우울, 불안 등의 혼란 정신과적 문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보상부적절과는 높은 직무긴장상태가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메타분석을 통해 보고한 바 있다. Dragon 등[36]은 노력에 따른 보상과의 결정권이 적으면서 의무는 과도한 경우 근로자의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보상부적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하나인 것과 일치하였으며, 우울증 외에도 정신적 불건강이 낮은 직무 자율성과 보상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25]. 공무원의 임금은 호봉제로 인하여 금전적 보상은 어려운 점이 있어 비금전적 보상인 능력 개발과 발휘에 대한 기회보장, 교육 훈련 기회, 국외연수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1].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인과적 방향성에 대한 규명은 향후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일개 지역 지방 공무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에게로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성이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요인을 찾아내고자 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수준과의 관계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방 공무원 734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44.38 ± 7.96 점으로 전문가 집단과 유사했으며, 우울은 14.46 ± 10.19 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보상부적절로 나타났다. 이에 조직 효과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료나 상사의 지지, 직무 분석을 통한 업무의 체계적인 분담노력과 인사 제도를 포함한 인력관리 연구를 통해 직무 불안정과 직무요구도 영역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능력 개발과 발휘에 대한 기회보장, 교육 훈련 기회, 국외연수 확대등의 복지제도로 비금전적 보상을 하여 보상부적절 영역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Choi JG, "Study on Job Stres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2011.
- [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ttp://org.mospa.go.kr/org/external/dept/deptReportIntro.jsp>
- [3] Tak JG, Yoon HJ, "Development of the Job Stressor Scale for Local Civil Servant", Journal Korean of Health Psychology, Vol. 7, No. 2, pp. 197-210, 2002.
- [4] Kim SG, "Emotional Labor in the Public Sector; An Empirical Study on the Front-line Civil Servants Civil Administration",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pp. 41-61, 2008.
- [5] Kim SM, "Th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tres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6] Park HS, Jung MH, Yu JH,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ence of Spous and Depression of Korean Elderly", The Journal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5, pp. 1181-1187, 2012.
- [7] Park JA, "Job-Stress and Depression in Central Public Administerial Official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2004.
- [8] Park SS, Yu JH, Park B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 Journal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5, pp. 771-777, 2013.
- [9] Um TS, "Impact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Mental Health Among Local Public Servant", Graduate School of Daegu Hanny University, 2013.
- [10] Kim JH, Park EO, "The Effect of Job-Stress and Self-Efficiency on Depression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ccupational Health Nurses, Vol. 21, No. 2, pp. 134-144, 2012.
- [11] Kim TG, "The Effect of Job Stress for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c and Social Support", Chung 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 [12] Park BY, Lee GH, Shin GH, "Relationship

- Between Verbal Abuse and Mental Health in Some Operating Nurses", *The Journal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5 pp. 1205-1211, 2012.
- [13] Kim TO, Kim GS, Ahn YS,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Field Firefighters", *Korean Journ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22, No. 4, pp. 378-387, 2010.
- [14] Park HJ, "Study on Stress Suicide Ideation of Police Office ; Focused on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 [15] Cho MJ, Kim GH,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 R Major Depression",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2, No. 3, pp. 381-399, 1993.
- [16] Jang SJ, Goh SB, Gang DU, Kim SA, Gang MG, Jung JJ, Cho JJ, Son MA, Chae Ch, Kim JW, KimJI, Kim HS, No SC, Park JB, Woo GM, Ha MN, Park JS, Lee GY, Kim HR, Gong JO, Kim IA, Kim JS, Park JH, Hyun SJ, Son DG,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17, No. 4, pp. 297-317, 2005.
- [17] Oh GG, Gang MH Lee SH,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of School Nurse", *Journal Korean Health Nursing*, Vol. 26, No. 1, pp. 60-71, 2012.
- [18] Yoon SH,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Using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Journal Korean Academy Nurse Administration*, Vol. 15, No. 3, pp. 463-470, 2009.
- [19] Lee KH, "Effect on Job Stress of Hotel Employee to Depression and Service Orientation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Employment Type and Hotel Grad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Vol. 1, No. 4, pp. 60-71, 2009.
- [20] Ju HJ, "A Study Analyzing Job Stress Factors and Levels among Local Government Employee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1, No. 1, pp. 195-221, 2005.
- [21] Yoon SH, Choi JS, Shin DH, Chung IS, Ha JS, "Job Stress in Subway Workers and Firemen", *Korean Journ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19, No. 3, pp. 179-186, 2009.
- [22] Kim YT, "The Cause of Job Stress among Workers in the service sector, *Journal Far East Social Welfare*, Vol. 6 pp. 69-99, 2010.
- [23] Ha JH, Kim DI, Seo BS, Kim US, Yoo SH, Kim SG, "Job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Fire Fighters", *J Korean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20, No. 2, pp. 104-111, 2008.
- [24] Jang M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f Flight Attenda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25] Song US, Kim JH, "The Influencing of Job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mong Lower Ranking Public Official",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6, No. 1, pp. 117-137, 2002.
- [26] Jung YS, "A comparative study on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Social Worker and Public Health Workers,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2004.
- [27] Lee SU,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epressive symptom for Migrant Worker in Kyung-gi Province in Kore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 [28] Chu SH, Ryu HC, Bae KJ, Song JC, Lee SJ, Kim IA,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Bankers", *Korean Journ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22, No. 4, pp. 316-323, 2010.
- [29] Lee BI, Jung HS Kim SY, Lee GY, "Factor Influencing Depression with Emotional Labor among Worker in the Service Industry",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5, No. 4, pp. 566-576, 2004.
- [30] Huh JH, Lee JM, "A Study on Job Stress, Depression and Leisure Activities Among Workers in the Beauty Industry", *Journal Korean Society Cosmtology*, Vol. 16, No. 4, pp. 1139-1150, 2010.
- [31] McDonough P. "Job Insecur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Vol.

30, pp. 453-476, 2000.

- [32] Rugulies R, Thielen K, Nygaard E, Diderichsen F. "Job Insecurity and the Use of Antidepressant Medication Among Danish Employees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Prolonged Unemployment ; a 3.5-year follow-up study", Journal Epidemiologic Community Health, Vol. 64, No. 1, pp. 75-81, 2010.
- [33] Koh SB, Son M, Kong JO, Lee CG, Chang SJ, Cha BS,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Distress of Atypical workers", Korean Journ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16, No. 1, pp. 103-113, 2003.
- [34] Jun ES, Lee, GS, Lee SY Yu JH, Hong A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for Hospital Workers by Type of Employment", Korean Journ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Vol. 21, No. 1, pp. 28-37, 2009.
- [35] Standsfeld S, Candy B.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a-meta-analytic review",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ntal & Health, Vol. 32, No. 6, pp. 443-462, 2006.
- [36] Dragon N, He Y, Moebus S, Jockel KH, Eebel, R, "Two models of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3, No.1, pp. 72-78, 2008.

저자 소개



박현희(Hyun-Hee Park)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보건학 석사)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수료

현재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금호 보건지소장
※ 관심분야 : 보건, 의료



류소연(So-Yeon Ryu)

1996년 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보건학 석사)
1999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의학 박사)

현재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관심분야 : 보건, 의료



김보은(Bo-Eun Kim)

1998년 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보건학 석사)
2013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과정 수료

현재 : 동강대 보건건강관리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 간호



천인애(In-Ae Chun)

2006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석사)
2013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현재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 관심분야 : 보건, 의료



김명권(Myung-Guon Kim)

1985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졸업(건축학석사)
2007년 2월 호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 석사)

현재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 관심분야 : 보건, 사회복지

